

2026년 9월 9일
해외 주식

중국 주식

AI가 벌어주는 시간: 대규모 내수 부양 시급성 완화

내수 부진에도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견조한 대외교역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8월 중국 수출입은 모두 20%대 후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경기 전반의 회복보다는 AI와 첨단제조에 편중된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컴퓨팅 장비와 자동차 등 첨단제조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고, 중국 AI CAPEX 확대가 반도체·컴퓨팅 수입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수출과 첨단제조 투자가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동안 소비, 부동산을 겨냥한 강한 부양책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수보다 AI·반도체·첨단제조 등 수출입과 CAPEX 사이클에 연동된 업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유지합니다.

8월 수출입: AI&첨단제조 중심 회복

2026년 8월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5.0%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1.1%p 확대됐다. 8월 반도체, 컴퓨터 장비 및 부품 수출은 각각 407.3억 달러(YoY +129.8%), 304억 달러(YoY +76.5%)로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7.9% 감소해, 가격 상승이 수출액 확대를 이끌었다. 자동차 수출도 18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0%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7월(+60.4%)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4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4% 늘었다. 지난해 8월 대미 수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출하가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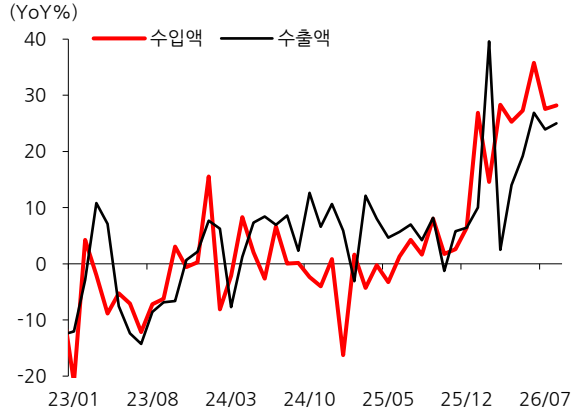
8월 수입도 전년 대비 28.2%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보다 0.7%p 높아졌다. 광범위한 내수 회복보다 AI와 첨단제조 투자 수요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8월 반도체, 컴퓨터 장비 및 부품 수입은 각각 658.2억 달러(YoY +83.6%), 199.8억 달러(YoY +209.1%)로 두 품목이 전체 수입의 30.4%를 차지했다. 전체 수입의 40.2%를 차지하는 첨단기술 제품 수입도 68.7% 증가했다. 컴퓨터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입은 전년 대비 10.4% 늘어나며 수입 증가율이 약화됐다. 주요 반도체 공급국인 한국, 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각각 108.1%, 41.5%, 20.0% 늘었다.

전세계 AI 투자, 중국의 강한 내수 부양 필요성 낮추는 요인

전세계 AI CAPEX 확대와 첨단제조 수요가 중국 경기의 하단을 방어하는 외부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컴퓨팅 장비와 자동차 등 첨단제조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중국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컴퓨팅 장비 수입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수출과 첨단제조 투자가 성장물을 지지하는 동안 대규모 내수 부양의 시급성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도 소비·부동산·전통 인프라를 강하게 부양하기보다 첨단제조·민간투자·전략 인프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내수 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소비·부동산보다 실적 가시성과 정책 지원이 동시에 확인되는 성장 업종의 상대적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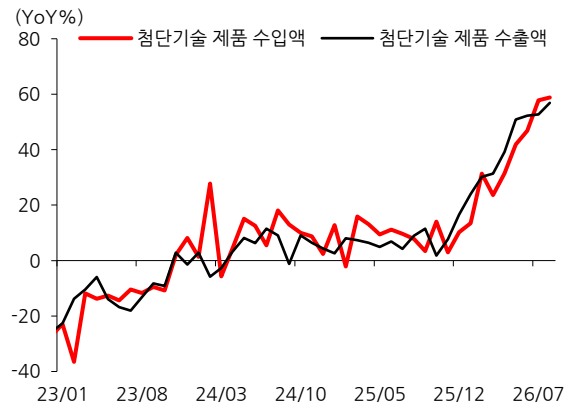
▶중국주식 박유진
yujin.park@hanwha.com
3772-8217

[그림1]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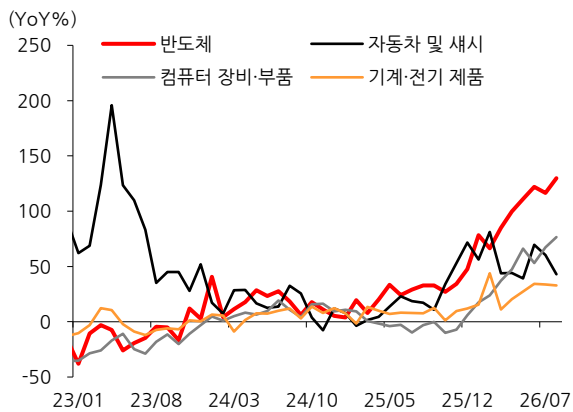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첨단제품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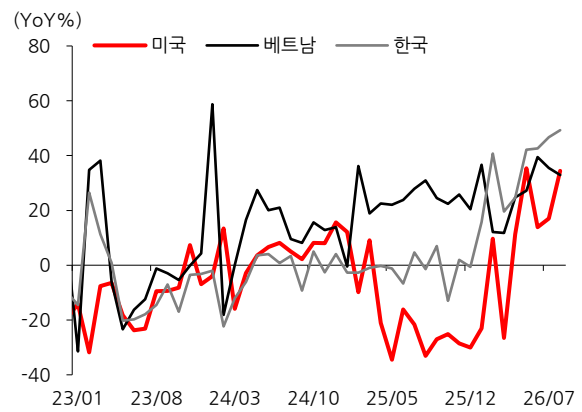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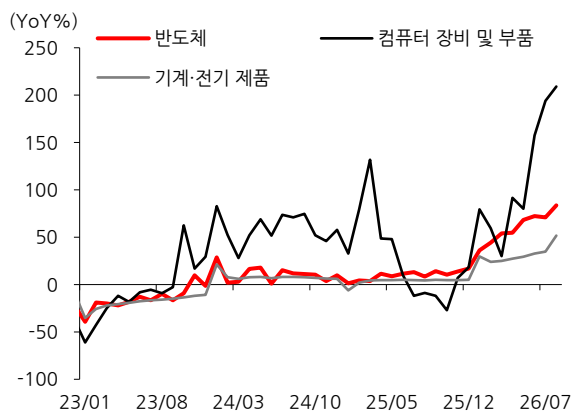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요국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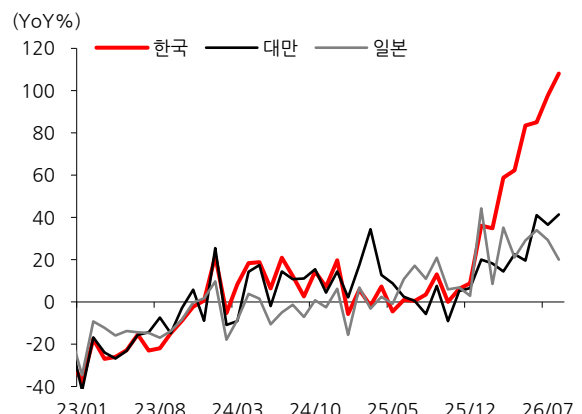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요 품목 수입 증가율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요국 수입 증가율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9월 9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유진)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